"종합 2위 지켰어요" 2006 도하아시안게임에서 3회 연속 종합 2위 목표를 이룬 한국 선수단이 보름 여의 대장정을 마치고 17일 귀국했다. 이날 오후 정현숙 단장(앞줄 오른쪽에서 세번째)과 김정길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앞줄 오른쪽에서 네번째), 최우수선수(MVP)로 뽑힌 박태환(앞줄 오른쪽에서 다섯번째) 등이 인천공항 프리미엄 라운지에서 귀국 기자회견을 갖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金 목표치 크게 미달… 불안한 2위 수성

도하 아시안게임 결산

①종합 2위 '절반의 성공'

2006 도하아시안게임에 출전한 한국선수단은 일본을 따돌리고 3회 연속 종합 2위를 지켰지만 종전 대회보다 메달 수가 대폭 줄어들어 2008년 베이징올림픽 대비책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지난 15일 막을 내린 이번 아시안게임을 ▲종합 2위는 '절반의 성공' ▲화려한 외형과 엉성한 내실 ▲여전히 부실한 기초종목 등 모두 3차례로 나눠 결산한다.

양궁·태권도·골프·유도·펜싱·볼링 2위 원동력

야구·축구·사격·역도 등 부진 메달레이스 차질

한국은 이번 아시안 게임동안 금메달 58개, 은메달 53개, 동메달 82개를 따내 금 50개, 은 71개, 동 77개에 그친 일본을 제치고 1998년 방콕대회와 2002년 부산대회에 이어 3회 연속 종합 2위에 올랐다.

대회 중반까지 메달 수가 기대치를 한참 밑돌아 애간장을 태우기도 했지만 한국은 최강 중국에 이어 '아시아 2인자'의 위치를 지킨 셈이다.

그러나 당초 목표였던 금메달 73개보다 무려 15개나 모자라는 등 이번 대회에서 한국이 건진 메달 수는 4년 전 부산대회(금96, 은80, 동84)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1998년 방콕대회(금65,은46, 동53개), 1994년 히로시마대회(금63, 은56, 동64)보다도 떨어졌다.

특히 한국은 대회 초반 전략 종목이던 사격과 역도, 배드민턴, 탁구 등에서 극심한 부진을 보여 메달레이스에 상당한 차질을 빚었다.

또 야구, 축구, 농구 등 구기종목의 잇단 참패는 선수단 전체 분위기까지 가라앉게 만들었다.

이런 악재 속에도 희망은 있었다.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양궁은 8년만에 남녀 개인과 단체전을 휩쓸었고 국기(國技) 태권도는 9체급을 석권했다.

또 골프는 아시안게임 사상 처음 남녀 개인과 단체전 금메달을 싹쓸이해 새로운 효자종목으로 떠올랐고, 유도(금4,은5,동3)와 사이클(금5,은2,동9), 볼링(금4,은4,동3), 펜싱(금4,은4,동2), 레슬링 그레코만형(금4) 등이 종합 2위의 원동력이 됐다.

특히 수영 자유형 200m와 400m, 1500m에서 3관왕에 오른 박태환(경기고)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 상위 입상을 벌써부터 예감할 만큼 놀라운 수준의 경기력을 펼쳤고 사이클에서 최초로 3관왕에 오른 장선재(대한지적공사)도 새로운 스타로 떠올랐다. 그럼에도 한국이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종합 10위에 오르기 위해선 종목별로 전반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위기론이 나오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박태환, 아시안게임 최우수선수 "故 김형칠 선수에 MVP 바친다"

"MVP(최우수선수) 받게 돼 기쁘고 승마 경기 중 돌아가신 고(故) 김형칠 선수에게 MVP를 바치고 싶어요"

17일 오전 한국 선수단 본진과 전세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귀국한 2006 도하아시안게임 수영 3관왕이자 대회 MVP인 '마린보이' 박태환은 도하에서 불의의 낙마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김형칠 선수를 추모했다.

기체 결함으로 중국 상하이에서 12시간을 대기하다 대회 폐막식이 끝날 무렵에야 도하에 도착했던 박태환은 긴 여정으로 피곤함에 지친 모습이었지만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에는 차분하게 응했다.

박태환은 공항 2층 프리미엄 스카이 라운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MVP 소감을 묻는 질문에 MVP를 김형칠 선수에게 바치고 싶다고 밝힌 뒤 "김형칠 선수의 사망 소식을 전해듣고 안타까웠다. MVP 시상식에 직접 참석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영광스럽고 기쁘다"며 앳된 얼굴에 환한 웃음을 머금었다.

그는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일단 푹 자고 싶다"고 10대 신세대 답게 솔직하게 대답한 뒤 "내년 3월 세계선수권대회가 있는데 남은 기간 잘 준비해서 메달을 딸 수 있도록 하고 한국 수영이 강하다는 걸 알리고 싶다. 그랜트 해킷(호주) 선수가 나온다면 좋은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박태환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3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 등 총 7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고, 대회 MVP 투표에서 총 869표 중 231표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99표에 그친 중국의 체조 4관왕 양웨이를 제치고 '별중의 별'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한편 박태환을 비롯한 2006 도하아시안게임 한국 선수단 본진 25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 16분 대한항공 전세기편으로 귀국했다.

설기현 75분 활약 레딩은 1-2 역전패

발톱 부상을 당했던 설기현(27·레딩)이 75분 동안 활약했지만 팀은 아쉽게 1-2로 역전패를 당했다. 설기현은 17일(한국시간) 새벽 레딩 마데스키스타디움에서 벌어진 블랙번 로버스와 2006~2007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18라운드 홈 경기에서 케빈 도일과 투톱으로 선발출전, 1-1로 맞서던 후반 30분 르로이 리타와 교체됐다.

레딩은 이날 전반 41분 설기현의 발끝에서 시작된 제임스 하퍼의 선제골로 승리를 예상했지만 후반 중반에 연속골을 내주면서 1-2로 무릎을 꿇었다. 이로써 레딩은 최근 3경기 연속 무승(1무2패)의 부진에 빠지면서 시즌 8승2무8패(승점 26)를 기록하게 됐다.

레딩의 최전방 공격을 맡은 설기현은 폭넓은 움직임으로 공격을 이끌었고, 전반 41분 터진 하퍼의 선제골에 도움을 준 헌트에게 패스를 내주는 숨은 활약을 하기도 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이승엽 - 이병규 내년 4월3일 첫격돌

'아시아 거포' 이승엽(30·요미우리 자이언츠)과 '안타 제조기' 이병규(32·주니치 드래곤스)가 내년 4월3일 일본프로야구 페넌트레이스에서 처음 방망이 대결을 벌인다.

17일 일본프로야구기구(NPB)가 발표한 내년 정규시즌 일정에 따르면 센트럴리그는 내년 3월30일 시즌 개막전을 시작으로 총 144경기(인터리그 24경기 포함)를 치르는 가운데 요미우리와 주니치는 4월3일부터 3연전을 벌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스포츠중계

18일(월)

▲PGA 타깃 월드 챌린지 FR(06 : 00·SBS스포츠)

▲세계학생유도선수권(14 : 10·KBS1)